

1. 15

치의신보 현판식

창간 31주년을 맞아 치의신보는 지난 1월 15일 치협회관 정문에 동판으로 제작된 현판을 부착하고 대외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기택 협회장, 임형순 부회장, 김석균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대규 의정국장, 치협 예방

지난 97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에 임명된 오대규 국장은 1월 15일 치협을 예방하고 이기택 협회장과 치과계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오국장이 보건국장 재임시 구강보건과 신설에 커다란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2. 5-6

치과의사 국가시험 개발 연찬회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개발 연찬회가 열렸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에 있는 치대학장, 교무담당 부학장, 국가시험 관련 학회 추천 교수, 치협 관련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분임 토의를 통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가고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각 과목별 학습목표, 국가수준의 치대교육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 10

정기이사회

지난 2월 10일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주자율지도개선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희망회원제를 오랜 논의 끝에 4월 대의원 총회 전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회원들의 인식도가 낮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여 전치과계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13

이기택 협회장 고건 총리 면담

치협 이기택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의료인 단체장들은 지난 2월 13일 고건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교육부 주도의 의약계열대학 신·증설에 대한 의료단체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 19

치협 고문단·자문위원 간담회

치협 회장단은 지난 2월 19일 협회 고문단 및 자문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 문제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치과계 원로들은 신규 배출된 후배 치과의사들이 개업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치협이 치과대학 신·증설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이들의 진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내에 있는 구강보건과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협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20

정관개정연구위원회

정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임형순)는 지난 2월 20일에 제5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개위는 4월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상 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